

제 279호 · 2014년 10월 22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통행량 증가
2. 터키 Yilport 홀딩, 노르웨이 오슬로항과 터미널 운영사업 개시
3. SingPost, 전자상거래용 통합 물류센터 개발
4. 푸에르토리코, 국제터미널 운영자 모집

물류시장동향

1. 롱비치 항, 화물 적체현상 해결위해 '무료장치기간' 연장 도입
2. 싱가포르, 항만 운영 최적화 관련 연구에 5천4백만 달러 투자

공지사항

1.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즈니스 포럼
2. E-learn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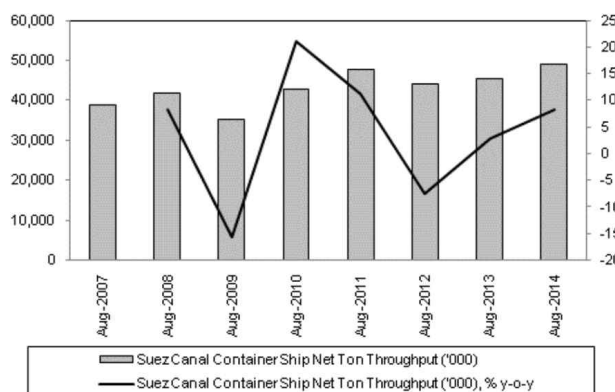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통행량 증가

- 2014년 8월 한달동안 수에즈 운하의 컨테이너선 통과량 4,900만 톤¹⁾으로 2013년 8월의 4,530만 톤에 비하여 8.3% 증가했음
 - 수에즈 운하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전년대비 컨테이너선 통행량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파나마 운하는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했음
- 원인으로는 미국에 대한 supply chain 역할 강화가 주로 거론되고 있음
 - 미 서부지역 국제항만노조(ILWU, 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와 태평양 해운협회(PMA)의 재계약 협상이 지연되자²⁾, 파업을 우려한 화주들이 미 서부항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부로 화물을 보낼 수 있는 수에즈 운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유가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임
- 수에즈 운하의 컨테이너선 통행량 증가는 미 서부항만의 파업 위협이 사라지고, 파나마 운하 확장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유는 선박대형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수에즈운하는 18,000TEU급 선박도 통과가 가능한 반면, 파나마 운하는 확장이 되더라도 13,000TEU급 선박으로 통항이 제한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수에즈운하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점임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통행량 및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4.10.10.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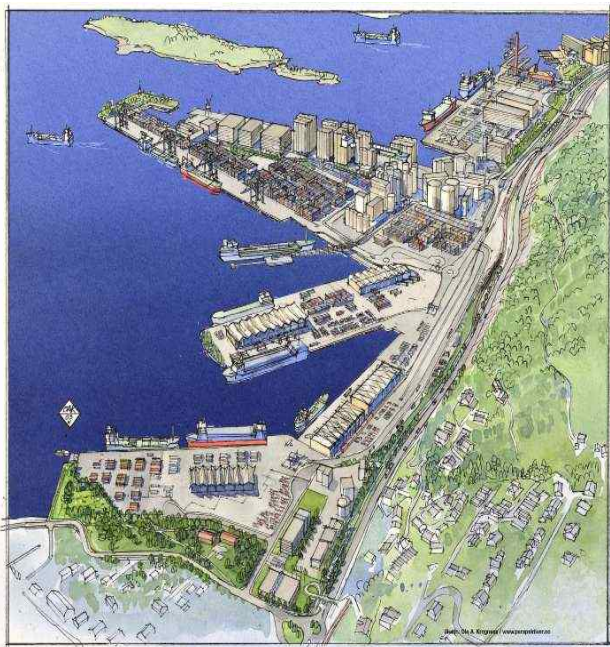
1) 단위는 net ton

2) 양측은 2008년 체결된 6년 계약안이 7월1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협상이 마감시한을 넘겨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음.

□ 터키 Yilport 홀딩, 노르웨이 오슬로항과 터미널 운영사업 개시

- 터키 일드리姆(Yildirim) 그룹의 해운항만 물류 계열사인 일포트 홀딩은 노르웨이 오슬로항과 임대 계약을 통해 오슬로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진출한다고 최근 발표함
- 일드리姆 그룹은 크롬원광 및 석탄 채굴 등 자원 개발, 비료 생산수출, 기타 해운조선 등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음
- 일포트 홀딩은 이중 항만물류 부문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하며, 터키 국내외에서 ETI 물류, 컨테이너 데포, 광물 야적장 등을 운영 중임
- 일포트 홀딩은 터키의 게브제(Gebze) 항, 겐리크(Gemlik) 항, 암카(Yamca) 항 등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 몰타와 스웨덴으로 진출하여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 일포트 홀딩은 2025년까지 세계 10대 항만 운영사로 도약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했음

< 오슬로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계획(Sjursøya) >



자료 : www.oslohavn.no

< 오슬로 항 조감도 (전체) >



자료 : www.oslohavn.no

- 오슬로항 터미널 부지 임대기간은 최초 20년(10년 연장 가능)으로, 일포트 홀딩측은 개발 완료시 오슬로항이 45만 TEU 능력의 노르웨이 최대 컨테이너 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오슬로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26만 TEU에 머무르고 있음
- 노르웨이 오슬로 항은 현재 일일 50~60척의 선박 출입하고 있으며, 최대 수심 11m의 비교적 작은 항만
- * 현재 오슬로항에는 컨테이너선과 페리선이 주로 출입함
- 새 컨테이너 터미널은 오슬로항의 시단브나(Sydhavn) 지구의 Sjursøya에 건설 예정임

- 금번 오슬로항 확장 계획은 피요르드 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오슬로항 경쟁력 상실, 향후 오슬로 주변의 인구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임
 - 오슬로시의 자체 도시재개발 계획인 피요르드 도시 계획(Fjord City Plan)의 추진으로 인해 오슬로의 해안선이 과거 11km에서 6km로 대폭 축소되는 등 항만 경쟁력을 일부 상실
 - * 오슬로시의 친수공간계획국 주도로 200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피요르드 도시계획은 친수공간의 확보 등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초점
 -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오슬로 시위원회는 화물터미널 확장 계획 검토
 - 현재 노르웨이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이중 약 50%는 오슬로 항으로부터 3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오슬로시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 www.oslohavn.no, 2014.10.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 SingPost, 전자상거래용 통합 물류센터 개발

- SingPost³⁾는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Tampines지역에 1억 8,200만 달러를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임
 - SingPost에 따르면 Tampines 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운영되는 최첨단 통합 물류센터로,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1억 8,200만 달러의 시설 개발 비용은 부지 임대료와 건설비, 그리고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SingPost 그룹의 내부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임
- 물류센터와 인근의 사무실 건물은 JTC Corporation⁴⁾으로부터 30년 동안 임대받은 3.25 헥타르 부지에 건설할 예정임
 - Tampiness 물류단지에 건립될 553,000ft² 규모의 건물은 최첨단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하루에 10만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화물분류 시설을 구비하며 고객사들에게는 창고 시설도 제공될 예정임
- SingPost는 온라인 상점 개설지원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전자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화물을 관리하고 물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임
 - 새로운 물류센터에는 지역 물류운영을 위한 8층 규모의 사무실도 함께 건립될 예정
 - Wolfgang Baier 대표이사는 Tampiness 물류센터가 SingPost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음
 - 또한 그는 Tampiness 물류센터가 지역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보관, 분류, 운송을 포함한 자사 전체의 전자상거래 물류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통합된 전자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 아태지역의 모바일 및 인터넷의 보급과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B2C 판매는 2016년에 2014년의 5,020억 달러보다 41% 증가한 7,0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 물류부서 Lee Eng Keat씨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의 개발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유통업체들을 위한 선두 지역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자료 : asiaone.com, 2014.10.8.1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3) 1992년 싱가포르 정부의 우편부서에서 민영화된 우정사업자로, 2003년 5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ST)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진출해 있음.

4) Jurong Town Corporation, 주룽 타운 개발청.

□ 푸에르토리코, 국제터미널 운영자 모집

- 푸에르토리코가 폰세(Ponce)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아메리카스(Port of Americas)항의 개발을 위해 국제터미널 운영자를 물색하고 있음
 - 아메리카스항은 121헥타르가 넘는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항만 처리능력 확장과 산업 성장의 기회가 충분히 있는 곳임
 - 푸에르토리코 경제 및 무역 개발부에 따르면, 아메리카스항과 민간사업자의 협력은 일자리 창출과 푸에르토리코 남쪽 해안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아메리카스항 개발은 장기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춘 푸에르토리코의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의 한 단계임

<아메리카스항 위치 및 전경>



자료 : www.nydailynews.com.

자료: www.caribbeanbusinesspr.com.

-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해협입구와 선석의 수심 15m 준설을 포함한 항만개발에 이미 285만 달러를 투자함
 - 푸에르토리코는 글로벌 사업 허브로서의 섬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력생산능력의 증가와 다각화를 계획함
- 또한 2015년에 파나마운하의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함
 - 아메리카스항은 모나해협⁵⁾에 위치한 대서양과 파나마운하 사이의 핵심 항로이고 이미 파나마스와 포스트-파나마스급 선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음
 - 폰세 항만청장에 따르면, 향후 수 년 안에 아메리카스항을 주요 글로벌 해운 허브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푸에르토리코는 해협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지역으로 50feet(15m)의 수심이 형성되어 있음
 - 선박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로 파나마운하 통행이 재개되면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4.10.14.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5) 서인도제도의 아스파놀라섬과 푸에르토리코섬 사이에 있는 해협임.

물류시장동향

□ 롱비치 항, 화물 적체현상 해결위해 '무료장치기간' 연장 도입

- 롱비치 항은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을 최대 3일을 추가 연장할 예정임
 - 기존에는 화주가 무료장치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처리하거나 초과 장치료와 창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음
 - 최근 휴일의 선박 입항 척수 증가, 처리 가능 물동량의 50%를 넘는 대형선박으로 인해 화물 적체현상이 일어남
 -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무료장시기간'이 도입됨
- '무료 장치기간'은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의 적체현상을 완화시키고 물류 흐름을 향상시켜 항만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제도는 기존 영업일인 4일에서 7일로 확대되어 10월 18일부터 시행됨

자료 : www.portnews.ru 2014.10.19.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i@kmi.re.kr)

□ 싱가포르, 항만 운영 최적화 관련 연구에 5천4백만 달러 투자

- 싱가포르는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연구센터에 5천4백만 달러를 투자함
 - 이 연구는 자원 사용의 최적화와 항만의 혼잡을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연구는 항만에서 도시로 수송되는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 운영의 최적화 및 물류 시스템 설계를 통해 신규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 처리용량을 개선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센터는 싱가포르 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과 일본 후지쯔(Fujitsu)사의 지원을 받음
 -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후지쯔사의 고성능 컴퓨팅기술을 이용함
 - 싱가포르 경영대학은 의사결정체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박사들의 참여를 지원함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10.15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즈니스 포럼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가 주관하는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년 10월 27일(월) 09:30 ~ 16:0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 볼룸
- 참가대상 : 극동 물류·해운·건설·인프라 투자 관심업체 등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및 식순	세부 프로그램
리셉션 (09:00 - 09:3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개막식 (09:30 - 10:15)	• 주요 참석자 소개 • 개 회 사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 축 사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 기조연설 : 알렉세이 츠데노프 (러시아연방 교통부 차관)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기념사진 촬영
제1세션 (10:20 - 12:00)	< 제1세션 : 극동 비즈니스 환경 현황과 발전 전망 > • 유라시아 물류 교통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미하일 브라착 / 국가두마의회 물류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 • 극동 선진개발구역(TAD) 발전정책과 향후전망 (알베르트 라키포프 / 극동개발부 부국장) • 연해주 내 외국기업 투자사례 및 전망 프로젝트 소개 (알렉세이 에로힌 / Ernst&Young 극동지부장) • 질의 & 토의
오찬 (12:00 - 13:15)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시간 및 식순	세부 프로그램
커피 브레이크 (13:15 - 13:3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프론트
제2세션 (13:30 - 14:50)	< 제2세션 : 극동지역 물류, 인프라 전망 프로젝트 발표 > - 자루비노 복합 신항만 개발 및 보스토치니 석탄 터미널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스베틀라나 실라예바 / Summa Group 자루비노 프로젝트부장) - 소비에트 가반 신항만 경제특구 개발 투자 프로젝트 (유리 부흐라코프 / 소비츠키야 가반 시장) - 블라디보스토크시 해양터미널 대형 쇼핑몰 복합단지 개발 (올렉 테미로프 / Temirov & Partmers 대표이사) - 질의 & 토의
제3세션 (14:50 - 16:00)	< 제3세션 : 극동지역 신규사업 진출 전략 세미나 > - 한국 기업들의 극동 사업 진출사례 및 전략 (명장호/삼일회계법인 이사) - 극동 투자환경 고찰 및 투자 진출시 법적 유의사항 (이승민/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러 산업·통상 발전 전망 (박종호/KRBC 대표) - 질의 & 토의
폐회 (16:00)	폐회선언

○ 참가 신청

- 참 가 비 : 무료 (점심포함)
- 신청기한 : 선착순 (150명)
- 신청방법 : 별첨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송부 (e-mail: info@krbcouncil.org)
- 문 의 처 : KRBC 사무국 서하늘 과장 (02-561-0305)

KMI 국제물류연구실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E-learn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3일(월)~4일(화) 9:00~18:00(2일)
- 장소 :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회의실 '파인')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국제물류협회
- 후원 :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
- 교육 프로그램
 - 11월 3일 월요일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00~09:20	Registration	
09:20~09:30	개회사 및 환영사	임진수 KMI 부원장
09:30~09:45	글로벌 물류동향 및 전망	이성우 실장
09:45~10:00	중견 물류기업의 해양플랜트 물류시장 진출 방안	신석현 우주해운항공 부사장
10:00~10:50	Breakbulk Market Trends	Capt. Arun Ukamanal
10:5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00	Chartering & insurance	Capt. Arun Ukamanal
12:00~13:30	점심	
13:30~15:30	ODC Force and Lever I	Capt. Arun Ukamanal
15:30~15:45	커피브레이크	
15:45~17:30	ODC Force and Lever II	Capt. Arun Ukamanal

- 11월 4일 화요일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00~09:20	Registration	
09:20~10:40	Proper Blocking & Bracing	Capt. Arun Ukamanal
10:40~10:50	커피브레이크	
10:50~12:00	Cargo Operations of Vessels	Capt. Arun Ukamanal
12:00~13:30	점심	
13:30~15:15	Road Operation	Capt. Arun Ukamanal
15:15~15:30	커피브레이크	
15:30~17:00	Case Study	Capt. Arun Ukamanal
17:00~17:30	질의 응답	
17:30~17:50	Award of certificates	
17:50~18:00	Closing Ceremony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참가신청 : 2014년 10월 30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아래 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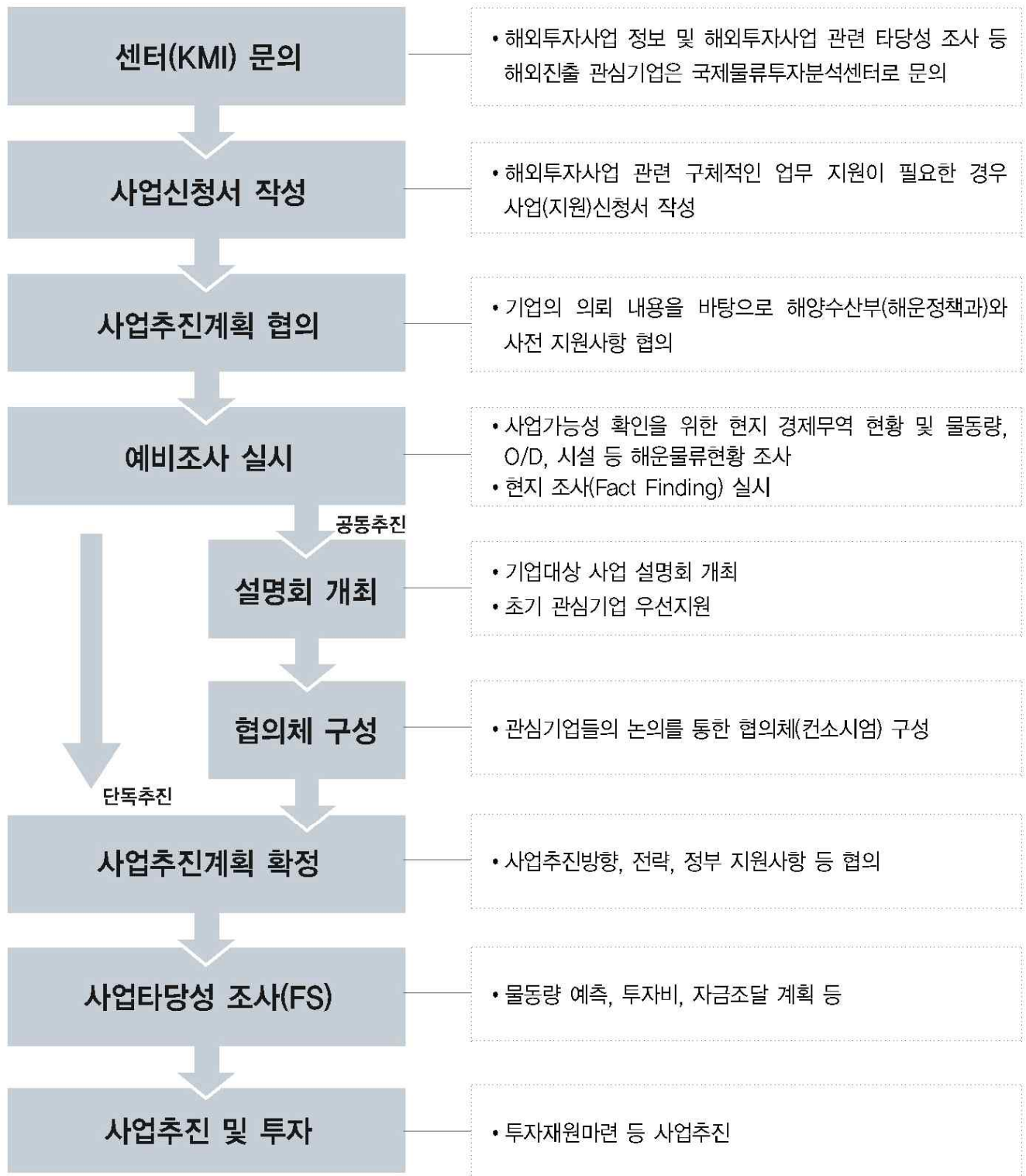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세원 연구원(T. 02-2105-2982, ksw@kmi.re.kr),
- 한국국제물류협회 임택규 차장(T. 02-733-8000, itg@kiffa.or.kr)

※ 본 교육은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워딩, 하역, 운송 등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에게 적합한 워크숍입니다.

※ 동 교육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